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 시명



길의 속성은 흘어짐이다. 여럿이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이 흘러진다. 갈등을 제 공하는 것은 갈립길이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빠른가 시끄러워진다. 어찌 갈립길뿐이겠는가. 한 길을 가다가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역가락처럼 뛰어지며 흘어지고 종내에 혼자가 되고 만다. 그래서인지 길을 팔랑하게 걷는 도보꾼들 중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결혼했더라도 제갈 길 가듯이 흘러지고 만다.

지난봄에 다산 유배 길을 걸었다. 서울에서부터 걸어야 마땅하지만, 강진에서부터 걸어 영암으로 넘어왔다. 문화부에서 주진하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의 후보지로 오른 다산의 남도 유배 길을 실사하기 위해서였다. 먼저 다산 초당에서 백련사까지 걸었다. 동백숲이 좋은 산 고개를 하나 넘으니 백련사가 있었다.

남도의 활엽수림 속을 걷는 것도 좋지만, 다산과 혜장선사가 나눴을 얘기가 물어있는 것 같아 좋았다. 800m밖에 안 되는 구간이라, 가족이나 학생들이 무리지어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나 또한 이 길에

매료되다 보니, 다산의 유배길이 적착하고 슬픈 길이 아니라 아름답고 싱그러운 길로 여겨졌다.

다산의 유배 길의 주요 구간은 강진읍 내의 동문주막에서 다시 시작된다. 동문

길은 흘어짐이요, 주막은 만남이라

주막은 다산이 강진에 유배되어 있을 때 처음 4년 동안 머물렀던 공간이다. 유배지 치고는 아주 몇 들어온 공간이다. 자취도 없으리라고 여겼던 동문주막이 뒷밖에 복원되어 있었다.

반기문 마음에 동문주막에 들어서니 마당에 대나무 평상이 놓였고, 마당 안쪽에 표주박이 떠있는 우물이 있었다. 우물을 둑을 죽이고 돌아서니, 다산이 머물렀던 주막 뒷방 사의재(四宜齋)가 눈에 들어왔다. 사의재 방안은 다산이 책을 읽다가 잠시 마실 나간 것처럼 간과 흰 도포가 벽에 걸려있고 앉은뱅이 책상에 책들이 정연하게 놓여있었다.

로 흘어져 걸던 우리 일행도 대나무 평상에 앉아 두부 한모와 막걸리 한잔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다산도 유배지에서 갈거리 흘러졌던 마음을 동문주막의 술 한 잔으로 주슬렀을 것이다.

다산 유배 길은 남도 여행길이다. 무위사에서 차밭을 지나 월남사지에 이르는 길도 좋지만, 강진에서 영암으로 넘어가는 월출산 누릿재길은 또 다른 울림이 있다. 영암에서 강진으로 넘어가는 지름길로, 제주 유래 길에 올랐던 송시열도 넘었고, 해남 가는 윤선도도 넘었던 길이다.

인적이 끊기고 옛길의 흔적도 희미해,

우리 일행은 누릿재 밑의 갈립길에서 어

느 길이 끊은지 한바탕 옥신각신했다. 갈립길에서 제 길이 끊다고 우길 때는 대책이 없다. 각자 기분다면 우길 때면 더더욱 난감해진다. 이런 갈등이 빚어질 때, 우리 사회는 나이가 많거나 목소리가 큰 사람에 선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우리는 경험이 많은 사람 쪽에 줄을 서서 제대로 누릿재를 넘어 월출산의 웅장한 자태에 압도된 채 피곤한 줄 모르고 산을 넘을 수 있었다. 아하, 역사사람들이 길을 간다는 것은 산수를 즐기는 것이었겠구나. 괴짜한 고난 행군이 아니라, 우리 국토의 혈관 속을 떠도는 즐거운 나들이였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멋진 길이었다.

선도자가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자가 되면 행복하다. 그런데 요즘은 돈 많은 사람에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돈 되는 쪽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걷기 바람, 자전거길 내기, 강 길 조성사업 등등 요사이 길 내기 작업은 경험 많은 사람들이 내는 길이 아니다. 돈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다. 길만 가보면, 길만 내다보면 반드시 갈라지게 된다. 어디에 주막을 들 것인지 고민하지 않으면, 그 주막에 감성을 올리는 한 단지 술을 갖춰놓지 않으면 민심은 갈거리 흘어지고 만다.

〈술령론가·(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복합단지 광주·전남 탈락 예견된 일이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복합단지) 유효지역으로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공동 선정됐다. 광주·전남지역의 진곡산업단지는 탈락한 것이다.

광주·전남의 복합단지 탈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우선 정부의 불공정한 심사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한 곳을 선정해 집중육성한다는 당초 방침과는 달리 복수로 선정했다. 내년 자체 선거를 앞두고 두 지역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탈락 지역들이 이번 선정에 대해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복합단지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다고 하면서도 평가일정과 공동발전 업무협약을 맺은 대구가 선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앞으로 이 협약을 근거로 양 지역이 의료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후속대책은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현정은 회장 방북, 남북화해 무드 조성되나

가 북한 합동에 예인됐다.

남북 관계 경색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난 뒤 미국적 두 기자가 석방되면서 북·미간 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먼저 남북 경색국면을 푸는데 적극적·동등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는 17~27일 실시되는 을지훈련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은 긍정적이다.

북측도 유씨와 연안호 선원을 가족들로 돌려보내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을 놓아야 한다. 인도주의를 강조하면서 미 여기자를 석방한 북한이 4개월이 넘도록 유씨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은 채 인질상태로 불잡아두고 있는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남북이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협력의 길을 다시 나서야 할 때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봉정선

요즘은 자체단체마다 축제가 일년이면 2~3개에서 많게는 7~8개까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를테면 충장축제, 벚꽃축제, 꽃바람회, 김치축제, 무슨 무슨 축제 등으로 전국은 일년내내 축제의 도가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축제 때 빼뜨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유명가수의 출연', '유명연예인들의 출연'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들은 기존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 대

로 키워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스스로 길라야 할 때라고 본다.

더구나 우리 광주시는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중앙부대 연예인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자는 않을 거라고 기대한다. 자체에서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먼저 무대에 세우는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겨야 한다. 행

지역 가수 출연 쿼터제 조례안 만들어야

부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한번 부르면, 사 출연비 중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광주전남의 지역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배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쿼터제를 적용한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역량에 맞는 적절한 대우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유명세를 너무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그런 거액을 쟁여 갈 만큼 우리 지역의 가수나, 연예인들보다, 월등한 것도 아니라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간 돈은 절대 지방에서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역외유출이 되어 자본의 순환구조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지역 가수나 연예인들도 탈레비전에 나오는 그들 뜻지 않게 가정력도 좋고, 연기력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단지 언론에 노출이 잘 되었을 뿐이다. 그들은 우리나라 가수협회와 연예인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임에도 지역 자체에서부터 후대접을 받다 보니 자연히 설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채 이름없이 스러져 버리는 결과를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대중문화도 지역의 트렌드

로 키워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문화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스스로 길라야 할 때라고 본다.

이제는 자자체들이 지역축제를 할 때마다 중앙의 연예인들에게 거금을 주기보다 그 돈을 지역의 연예인들에게 돌아가서 그 돈이 또 지역에서 쓰이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지역의 대중문화도 올바른 쪽을 틔우고 자양분을 먹고 자랄 것이다.

"내 지역의 문화예술을 내가 터부시하면 남들은 두 배 세배로 더 터부시함을 우리는 콘텐츠의 경계선 내에서 아니라 그 경계선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콘텐츠의 구매자 그룹, 전략적 생산자 그룹,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기술의 적용 영역, 구매자의 감성적 성향 그리고 시간의 흐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매년 9월 개최하는 문화콘텐츠 전문 전시인 'ACE Fair(Asia Contents & Entertainment Industry Fair,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아시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자 한다.

올해 4번째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이 형성되는 전

기고



임영일

21세기 미래 신성장동력인 문화콘텐츠산업은 녹색성장을 견인할 대표적 저탄소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미키마우스"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연간 5억 달러를 벌어들여 우리나라 연간 관공수입과 맞먹는 액수라고 하며, 게임으로 탄생한 "포켓몬스터"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의 소재로 활용되어 거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바, 적은 에너지와 자원 사용으로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 그것이

국제문화창의산업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바로 녹색성장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선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위하여 금년에도 '콘텐츠·소프트웨어·집중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콘텐츠의 경계선 내에서 아니라 그 경계선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콘텐츠의 구매자 그룹, 전략적 생산자 그룹, 보완적 제품이나 서비스뿐 아니라 기술의 적용 영역, 구매자의 감성적 성향 그리고 시간의 흐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매년 9월 개최하는 문화콘텐츠 전문 전시인 'ACE Fair(Asia Contents & Entertainment Industry Fair,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아시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역 대중문화예술인들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주고자 한다.

올해 4번째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마켓이 형성되는 전

획득, 국내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판매에 만 시각을 고정시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화콘텐츠 전시 마켓을 통하여 글로벌한 비즈니스 시장을 먼저 선점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전시에 국·내외 21개국 290여 개사가 440여 부스 규모로 참가하였고, 해외バイ어만 200여 명이 참가, 총 9천100만 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기록한 성과를 토대로 지난 6월에 세계적인 국제전시인증기구인 UFI 인증을

시회로 국내 콘텐츠의 생산과 판매에만 시각을 고정시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 문화콘텐츠 전시 마켓을 통하여 글로벌한 비즈니스 시장을 먼저 선점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올해 전시회에도 국·내외 참가업체들의 신경이 상황을 이뤄 전시 개최 두 달여 전부터 참가신청을 마친 해외업체와 바이어들은 숙박 예약과 상담 일정을 조율하고, 광주시 터여 프로그램을 문의해오고 있으며 일본, 홍콩, UAE,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전시회와 관련 협회 등이 공동투자와 제작 협력을 약속하는 MOU 체결 제안 등이 잇따르고 있다.

콘텐츠의 생산과 판매에만 시각을 고정시킨다면, 콘텐츠 시장의 점유율은 제로섬 게임과 같다.

콘텐츠 생산 노력과 함께 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때 우리 광주가 문화콘텐츠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으로 진입하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시 문화산업과장〉

無等鼓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을 되돌아 보면 '루이스 스캔들'이 먼저 떠오른다. 세계 최 강대국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직원의 염문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1998년 당시 백악관의 임시 직원 모니카 르윈스키가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폭로하면서 시작된 스캔들로 클린턴은 탄핵 직전까지 몰렸다. 결국 하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돼 겨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클린턴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다.

집간 동안의 격투질로 대통령으로서 온갖 수모를 겪었던 클린턴이 아내 헬리에게 당해야 했던 '핍박' 또한 수월치 않았을 법하다.

르윈스키와의 염문으로 세계인의 입에 희자했던 클린턴이 최근 수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 잡았다. 그는 북한 국경지대에서 취재하다 북에 141일 동안 억류돼 있던 미국의 여기자 로라 링(32)과 유나 리(36)를 구출해 낸 '영웅'으로 카메라 앞에 다시 선 것이다.

LA의 한 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재직시절 '달변'을 자랑했던 클린턴은 여기자 가족들의 상봉이 5분 이상 지난 뒤에야 나타나 조용한 미소로 일관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동포'(凍土) 품으로 여기는 북한 관광객이 군사통제구역에서 북한 군 초병의 총격에 숨진 뒤 13개월째 중단 상태다. 여기에 어선 연안호는 지난 달 말 통해 북방한계선을 실수로 넘어

북한 체류 동안 김정일과의 회동도 극적이었고, 두 여기자를 대동하고 LA에 도착한 이후의 행보 또한 감동을 주었다.

LA의 한 공항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재직시절 '달변'을 자랑했던 클린턴은 여기자 가족들의 상봉이 5분 이상 지난 뒤에야 나타나 조용한 미소로 일관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동포'(凍土) 품으로 여기는 북한 관광객이 군사통제구역에서 북한 군 초병의 총격에 숨진 뒤 13개월째 중단 상태다. 여기에 어선 연안호는 지난 달 말 통해 북방한계선을 실수로 넘어

북한 여행 전후에 보여지는 북한에서 여기자들을 구한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다.

이후 클린턴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실히 게방복과를 설명했다. 이번에 클린턴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대로에 다시 선 것이다.

준 행보는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전현직 대통령이 '양숙'이 되어버리는 우리나라에 매우 좋은 본보기였다.

비록 클린턴이 오바마와 정치적 신념을 같이하고는 있지만, 전현직 대통령이 국가 이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아름답기에 충분했다.